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 하, 세션 11

사무엘상 17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11회기,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58절로 구성된 긴 장입니다. 저는 이 책에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불붙였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의 믿음이 승리를 촉발시켰다고 명명한 이전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촉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왕조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나단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요나단은 좋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의 왕조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사울은 실제로 왕위를 잃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는 아말렉 사람을 많이 죽였으나 왕과 가축은 살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이 경우에는 사울의 왕권이 끝나게 되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진술로 이를 인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이 사람을 사울보다 나은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라고 주님께 의해 베들레헴으로 보내졌고, 다윗은 막내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주님은 그가 다윗의 마음에서 보신 바에 따라 이 선택을 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오히려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종 한 사람은 이 악령이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 연주자가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인 다윗입니다. 그는 음악도 잘하고 전사도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항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과 사울의 뜰을 오가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투를 벌이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쪽 언덕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저쪽 언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David는 이 시점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블레셋 전사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를 골리앗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은 아마도 사무엘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자,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챔피언이 있는데, 그는 매우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절은 그의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합니다. 음, 키가 얼마나 되나요? 1규빗은 말 그대로 팔뚝을 의미하므로 1규빗은 약 18인치,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스패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의 거리이므로 약 9인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것은 6 곱하기 18인치 더하기 9인치입니다. 이는 117인치가 되고, 이는 9피트 9인치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크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규빗 1뼘의 그리스어 사본인 요세푸스와 4번 동굴의 쿨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는 6피트 9인치로 해석하면 NBA에 적합한 파워 포워드 크기이지만 9피트 9인치만큼 특별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큰 골리앗을 선호하며, 다른 출처에서는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의 톤을 낮추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전통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골리앗의 키를 과장했고 실제로는 6피트 9인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서 2005년과 2007년에 Danny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Hayes와 Clyde Billington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널로 돌아가서 Hayes와 Billington의 기사를 찾으려면 해당 토론의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다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는 매우 불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로드되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썼고 투창과 창 등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일대일 전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많은 개인이 죽게 되는 전투에 군대를 투입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전투 문제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사를 선택하고 그 용사를 골리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자독식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겁을 먹었습니다. 이 블레셋 챔피언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누군가를 보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단일 전투에 대한 다른 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기원전 1800년 이집트 중왕국에는 세누이(Senui)라는 이름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티뉴의 영웅이라 불리는 동료와 일대일 전투를 벌인다.

이 수행원의 영웅은 전투도끼와 활로 세누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세누이는 화살로 그를 쓰러뜨리고 적의 도끼로 일을 끝냅니다. 이는 우리 이야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연상시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물매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만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조금 뒤인 고대 근동 지역인 기원전 1250년경에 히타이트 왕 카투스리쉬(Khatushilish)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력한 적군의 사령관을 물리치고 적군을 패주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이어 그는 적의 무기를 여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는 또 골리앗의 칼을 빼앗은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그것은 Nove의 성역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단일 전투에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리앗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투에서 자신과 맞설 누군가를 보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겁에 질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종의 교착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래식 전투를 선호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이 도전하는 날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David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미 16장에서 소개되었다는 사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새로운 캐릭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화된 형식적인 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이 이 책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것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문자 그대로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제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신호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새의 장남 세 명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저 아래에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치려고 사울을 왕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몇 가지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몇 가지 식량을 싣고 그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맞서 싸우거나 맞서지 않고 그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을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다윗은 양 떼를 목자에게 맡기고 짐을 싣고 이새가 지시한 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전쟁의 함성을 지르며 전투 진지로 나갈 때 그는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이 전통적인 전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을 물자 관리인에게 맡기고 형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전선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의 반항적인 말, 그의 도전을 외친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좀 더 공격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 나오는지 보십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무시하려고 나옵니다. 왕은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큰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고 그의 가족에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기꺼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이미 꽤 좋은 거래를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왕실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이스라엘에서 면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약속한 것을 방금 발견했습니다.

데이빗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입니다.

그는 설명되었고 나는 이것에 대해 조금 걱정합니다. 둘째, 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를 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사울이 이 일을 위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반에 걸쳐 데이빗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기사를 썼고 이를 Cracks in the Foundation이라는 신학교 저널 Bibsac에 게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 가지 모호성이 있고 David 측에 몇 가지 실패가 있음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아야 해요.

물론 사무엘하 11장에서 벽돌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밋세바 사건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는 험프티 덤프티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떨어지다. 아니, 아니. 이미 장후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David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6장에서 서술자는 다윗이 매우 매력적인 청년임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의 기초가 될지라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모호함을 봅니다. 데이비드는 어느 정도 사리사욕을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신학적으로 매우 기민하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다윗의 생애 동안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그가 임종의 침상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야기할 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할 캐릭터도 있습니다. 요압, 시메,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름이 평화를 의미하는 솔로몬에게 그의 손에 약간의 피를 흘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다윗, 특히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일찍 요압과 함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모호함은 다윗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을 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읽은 내용을 그에게 반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제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하는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사무엘을 보고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장남인 그가 옆에 서서 그의 막내 동생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거기에 어린 동생의 질투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는 여기 다윗을 보고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그 몇 마리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시니라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안다. 당신은 단지 전투를 구경하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거짓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글쎄, 우리가 엘리압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데이비드의 성격에 대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형제의 질투로 치부할 수 있지만 데이비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도 말을 할 수 없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같은 문제를 말하자 그 사람들은 전과 같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데이빗은 여기서 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그에게 짜증을 낸다.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피하고 사울이 그 일의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우연히 들려 사울에게 보고되자 사울은 다윗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17장 32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이 가서 그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울은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청년일 뿐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이것은 노련한 전사입니다.

잠시 동안 그의 크기와 그의 모든 무기를 잊어 버리십시오. 이 사람은 영원히 싸워왔고, 당신은 단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나가서 그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David의 대답은 흥미로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나이다. 그것이 나를 해칠 때에는 나는 그 털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할레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므로 그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에 사용된 문법을 보면 이것이 한 번 또는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David는 이것이 아마도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문법적 구조를 사용합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이런 일을 해왔고, 양들을 보호하고, 이 들짐승들과 맞서며, 내가 사자와 곰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블레셋 사람에게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인칭으로 동사를 6번이나 사용한 것 같아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했다. 내가 그거 했어.

그러나 37절에서 우리는 신학적 관점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은, 그는 사울에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열쇠는 37절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전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울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저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고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신학적인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골리앗은 단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들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강한 목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구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 짐승들에게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것을 매우 신학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이교도의 챔피언이 대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이비드에게 무기를 주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혔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은 꽤 키가 컸어요. 내 생각에 데이비드는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유별나게 키가 크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골리앗과 같은 청동 투구를 썼습니다.

유머러스합니다. 마치 사울이 여기서 다윗을 작은 골리앗으로 분장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David는 "이건 들어갈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좋은 의도로 주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이 전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David,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그의 슬링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근접전, 어쩌면 직접 대결 형식의 전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잡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골리앗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스라엘 챔피언은 매우 가까운 수준에서 교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링에 들어가 싸울 것입니다. 데이빗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는 말하자면 링 밖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기를 들고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기관총을 들고 나타날 거예요.

인디애나 존스와 비슷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검객이 와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인디애나는 다소 피곤하고 지쳐서 총을 꺼내 펄, 검은 검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Mark Twain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실제로 코네티컷 양키가 아서 왕의 궁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끈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목자의 자루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David가 5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널리 알려진 전통 중 하나는 골리앗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그 아래에 일종의 큰 가족이 있었고 다른 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데이비드는 자신이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David는 탄약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첫 번째 샷으로 골리앗을 잡았지만 항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냇물에서 돌을 선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앓수르인들이 땅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물매돌을 발견했습니다. 라기스에서 나온 물매돌도 있는데, 그것들은 둥글고 부싯돌로 만들어졌으며, 야구공보다 조금 작지만 무게는 야구공보다 더 큼니다. 그리고 하버드 쉘족 박물관의 로렌스 스테거(Lawrence Steger)는 아마도 시속 100에서 150마일의 속도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물매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그의 전성기가 티샷한 골프공을 쳤을 때 공은 시속 120, 125마일 정도의 속도로 티샷되었습니다.

빠르네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공은 이 슬링 스톤보다 무게가 덜 나가고 요즘에는 많은 투수들에 의해 시속 1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야구는 타자의 머리에 맞으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초창기 레이 채프먼은 칼 메이스의 투구에 맞아 사망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완두콩 슈터가 아닙니다.

David가 사용하는 슬링은 초등학교에서 Susie에게 침을 뱉는 뭉치를 쏘는 것과 같은 완두콩 슈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이 적어도 도시를 포위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하여 수직으로 던졌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마도 이런 종류의 움직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베냐민 투석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왼손잡이였으며 흥미롭게도 투석꾼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표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물매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 든 사람을 앞에 두고 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것이 손을 맞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드를 살펴보고 그가 소년에 불과하며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련한 전사처럼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린이 모델?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는 단지 그의 젊음 때문에 그를 경멸했을 뿐입니다. 귀여운 꼬마.

그 사람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데 내가 개이냐? 아마도 거기 직원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한다는 것은 단지 음란한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는 이제 신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들 중 하나인 다곤에게 다윗을 이기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시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치러 오거니와 나는 너를 치러 오노니 그가 물매로 말할 줄로 생각하리라.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대적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신학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리라.

바로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천하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니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이야기를 하는 고대 근동 스타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시체를 전쟁터에 남겨 두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같은 방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다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태도와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태도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아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들 안에서 생겨나는 용기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꼬투리 속의 완두콩 두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데이비드는 그를 만나기 위해 전선을 향해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물매로 던졌더니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혔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마에 가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속 100~150마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 물매돌은 골리앗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요약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는 손에 칼도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위에 섰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칼을 쥐고 칼집에서 뽑아 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인 뒤 자신이 말한 대로 칼로 그의 머리를 잘랐다. 이 장에서 모순을 보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방법에 혼란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설명에 따르면 그는 슬링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다른 하나에서는 칼을 사용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혼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담화절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사무엘서 주석에서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51절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다고 말할 때 앞서 사용했던 형태와는 다른 동사 형태를 사용하여 죽인다.

그리고 이 동사의 두 번째 형태는 히브리어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폴렐 어간입니다. 이는 사무엘 사사기에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사람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9장에서는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을 던져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후에 사용되었습니다.

He's done off, 그리고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사실, 앞서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살펴본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입니다. 갑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인다.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구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는 물매돌로 그를 쓰러뜨린 다음 골리앗의 칼로 그를 끝장낼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1800년의 이집트 평행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누히는 활과 화살로 적을 쓰러뜨린 다음 가서 레티뉴의 전투 도끼의 영웅을 데려가 그를 끝장냅니다.

그래서 David는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와 골리앗의 출신인 가드 어귀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였다.

빛진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져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와 무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지만 55절의 전투 장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실제로 전투 시작 부분이 회상되는데,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속물. 그가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은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니 기억하라.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아브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살아 계시는 한은 모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이 그에게 물으매 다윗이 이르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더 긴 버전이 영어 번역의 기초이지만, 그리스어 칠십인역에는 12절부터 31절까지와 이 부분을 생략한 훨씬 짧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16장에 있는데, 다윗이 왕궁으로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무기를 든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물론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돌아와야 했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제거하면 David가 현장에 바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경쟁 버전에서는 다윗이 전투에 나타나며 사울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데이비드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글썄, 그가 데이빗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요? 사울이 이미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의 법정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6장이 연대순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치 연대순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이새에게로 갔다가 사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가들은 이것으로 큰 일을 벌였습니다. 한 작가는 신명기의 역사가,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의 저자가 때때로 서로 모순되는 오래된 자료를 사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처음으로 사울을 두 번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다윗은 수금 연주로 사울의 악령을 달래고 왕의 무기를 든 전사가 된 악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양치기 소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은 다윗에게 청년이여,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 사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이자 무기를 든 대장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대적이고 비판적인 상상인가, 아니면 사울이 정말 처음으로 다윗을 두 번 만난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현대적 상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본 저자는

단축본인 칠십인역이 문제가 있는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교묘하게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심각한 기억상실증이나 노쇠증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역사적일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일종의 표준적인 견해이며, 모든 것은 55절부터 58절까지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비판적인 합의가 큰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문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엔 그는 데이비드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는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25절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그의 가족에게 승리자 면세 자격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미리 생각하고 아브넬에게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묻는 질문은 나에게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에 가장 가까운 유사점은 창세기 24장, 23장,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딸이 등장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하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누군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이삭의 미래 신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대가족 안에서 신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24장 4절에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에게 한 그의 질문은 그것이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녀는 내가 레베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원을 묻는 우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브두엘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Betuel이 친척이니까 좋은 거죠. 그러므로 사울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David의 대답은 정확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귀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귀하는 누구인지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울의 의도였다면, 그는 그냥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기 32장, 27장에서 야곱의 초자연적인 대적, 천사, 주님이 실제로는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싶다면 미아타,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7, 18장에서 야곱에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시점에서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질문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기만적으로 내가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다른 예입니다.

사무엘하 1, 8장에서 죽어가는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는 아하시야의 친척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친척입니다. 나오미가 룯기 3장 9절에서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룯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그러자 루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루스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자 했다면, 그렇게 간단했다면, 그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David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David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처럼 다윗도 아버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17장 25절에서 사울이 그 가족에게 면세 지위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모순이 아닙니다. 이제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쎄, 알았어, 충분히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울과 아브넬은 16장에서 이전에 이새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보았고 사울은 실제로 이새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면, 제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 것이고, 그들이 데이비드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한 번 일어났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2주 후 나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는데 평생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항상 기억하고 있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쨌든 서기관들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문자 내용에는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편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아브넬이 이새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브너에게 이것이 정말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그는 이 이름을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단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David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시점에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 루프 외부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종들은 다윗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울과 아브넬은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왜 55절에서는 그를 이 청년이라고 부르고 66절에서는 이 소년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는 그냥 데이빗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미 17장 33절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초점은 경험이 없는 청년 다윗과 노련한 전사 골리앗 사이의 대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청년과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젊음은 이 모든 것에서 매우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그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윗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이 David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개의 경쟁 계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역에는 더 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긴장감이 전혀 없는 짧은 버전의 성경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칠십인역에 있는 내용이 일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축한 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된 소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히브리어 버전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더 긴 최종 정경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70인역에서 그것이 사용된 출처 중 하나임을 발견하지만 다른 자료로 보완되어 이야기의 긴 버전을 제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읽은 논평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불러일으켰던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과 동일한 주제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구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승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면 그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골리앗의 편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골리앗이 그것을 블레셋 대 이스라엘의 문제로 만들고, 챔피언, 챔피언의 전투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실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위축시킬 수 있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이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크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섰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를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약간의 속임수. 모두가 그가 링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관총을 꺼내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장 상태에 있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고 열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의 무기는 우월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곳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을 실행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데이빗이 매우 뛰어난 투석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목자로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스포츠 용어에 익숙하다면 그는 질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우 능숙한 운동선수가 압박감에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 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David는 거기 서 있었고 그는 슛을 성공시켜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첫 번째 샷에서 해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돌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이 자신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큰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위협으로 여길 것이고, 다윗의 성공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점점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David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가 사무엘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왕조를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많은 장애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11회기,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